

[논단]

영적 돌봄을 통한 사회적 치유* **

■
박 준 양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신부]

1. 서론
2. 과학기술 시대 및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변화
3. 보건의료 현장의 영적 요구
4. 역동적 의미통교 언어로의 전환
5. 영적 돌봄의 사회적 영향
6. 가톨릭교회의 영적 돌봄과 사회적 봉사
 - 6.1. 그리스도교 초기 전통의 돌봄 정신과 사회적 실천
 - 6.2. 가톨릭교회의 최근 문헌에 나타난 영적 돌봄 전망
7. 결론

1. 서론

영적 돌봄(spiritual care)은 의학적 치료(cure) 개념을 넘어서 인간
의 전인적 치유(healing)를 지향하고 마침내 온전함(wholeness)으로의
도달을 목표로 하는 돌봄 개념이다. 이러한 영적 돌봄에 있어 환자
및 돌봄 제공자의 인격적 차원이 강조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돌봄은 개인의 인격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돌봄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healthcare) 현장에서
의 변화는 사회적 차원의 치유와 평화를 위한 기여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통한 사회
적 변화와 치유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

* 이 글은 2018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펴보도록 할 것이다.

2. 과학기술 시대 및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변화¹⁾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 살아간다. 한편으로 보면 그에 따른 생활의 편리함과 유용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우리는 ‘과학주의’(scientism)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과학주의’란 용어를 일차적 의미로 설명하면, ‘기술지상주의’(technocentrism)적 관점의 과학주의, 즉 ‘과학기술만능주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급성장, 그리고 생명공학(biotechnology) 산업의 발전은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 삶에 대한 부정적 영향 또한 만만치 않게 드러낸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smart phone)과도 같이 대중화된 최첨단 전자기기들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의 홍수에 마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에 관해 질문하고 성찰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모두 상실해 버린 채, 순간순간 쏟아지는 정보들에 휘둘리며 살아간다.

그런데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과학이 전통적인 불가침의 초월적 영역을 넘어서고 대체하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착각과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재위 2005~2013)가 말하듯이, “기술의 우위성은 사람들이 물질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경향”²⁾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

** 이 글은 2018년 10월 26일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및 호스피스연구소(WHO 협력센터) 주최로 “영성: 외로운 사회와 치유적 현존”(Spirituality: Healing Presence in an Abandoned Society)이란 주제하에 개최된(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 제12차 International Hospice & Palliative Care Conference에서 그 초안이 발표되었다.

1) 이 단락은 다음의 논문을 부분적으로 발췌 혹은 요약 및 수정하여 전체 문맥에 맞게 종합해 재구성한 것임: 박준양, 「오늘날 건전한 신앙을 저해하는 문화적 흐름과 운동에 관한 조직신학적 성찰」, 『교회사연구』 42(2013/겨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39-203쪽.

한 과학적 실증주의(scientific positivism)에 대하여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재위 1978~2005) 역시 그 위험성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과학적 탐구의 영역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형이상학적이거나 윤리적인 전망에 대한 일체의 호소를 배격하는 실증주의적 정신(mens positivistica)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윤리적 가치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인간 인격과 그 사람의 일생 전체와는 다른 어떤 것을 그들 관심의 중심에 놓는 위험을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인 일부는 기술적 진보를 위한 기회라 생각하고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자연과, 심지어 인간 존재자에 대해서까지도 거의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굴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³⁾

실제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네트워크(network)에 접속 가능하다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computing) 개념이 등장했고, 그로 인해 동시에 모든 접속자를 그 해당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의 망 안에서 관찰, 통제 가능하다는 가공할 현실로의 전이가 가능해졌다.⁴⁾ 이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껏 하느님의 능력으로 간주되던 무소부재(無所不在) 혹은 편재(遍在)의 개념이 사실상 기술적 차원에서 현실화된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이라 여기던 유전자 조작과 인간 생명체의 복제 가능성 등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면서, 이는 사실상 하느님의 창조적 전능(全能, omnipotens) 개념이 과학기술

2) 교황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인간 발전에 관한 회칙』(2009.6.2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113쪽(7항)[원문: “Litterae encyclicae Caritas in Veritate de humana integra progressionem in caritate veritateque”, *Acta Apostolicae Sedis* 101(2009), 641~709].

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신앙과 이성—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관한 회칙』(1998.9.14.), 이재룡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59-60쪽(46항)[원문: “Litterae encyclicae Fides et Ratio de necessitudinis natura inter utramque”, in *Enchiridion Vaticanum: Documenti ufficiali della Santa Sede*, vol.17(1998), Bologna: EDB, 2000, pp.898~1091(nn.1175~1399)].

4) 참조: 심광현,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예술·학문·사회의 수평적 통섭을 위하여』, 문학과학사, 2009, 50-55쪽.

에 의해 침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명윤리(bioethics)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게 만든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만 같은 과학기술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듯 과학기술의 힘에 의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 같은 미래에 대한 환상은, 역시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초한 매스미디어(mass media) 산업을 통해 더욱 확산되어 나간다. 이제 인간 정신의 의미와 가치가 의문시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즉,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자체가 절대적 가치화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맥락에서,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한스 쿡(Hans Küng, 1928~)은 “모든 건물을 오직 자연과학이라는 토대 위에만 세우려 하는”⁵⁾ 심각한 오류에 대해 지적한다. 오늘날 자연과학의 역할은 당연히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세계관을 세우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현 교황 프란치스코 1세(재위 2013~)는 첫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 2013.6.29.)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맹신에 기초한 배타적 가치관, 즉 과학적 실증주의와 상대주의를 진리 개념과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현대 문화에서는 기술(technology)의 진리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제작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로 여겨집니다. 또한 기능적이고, 삶을 좀 더 편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 진리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확실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로 여겨집니다.(25항)⁶⁾

5) 한스 쿡, 『한스 쿡, 과학을 말하다—만물의 시초를 둘러싼 갈등과 소통의 드라마』, 서명옥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1, 63쪽(원문: Hans Küng, *Der Anfang aller Dinge: Naturwissenschaft und Religion*, München: Piper Verlag GmbH, 2005).

6) 교황 프란치스코 1세, 『신앙의 빛—신앙에 관한 회칙』(2013.6.29.), 김영선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36-37쪽[원문: “Litterae encyclicae *Lumen Fidei* de fide”, *Acta Apostolicae Sedis* 105(2013), 555-596].

이처럼 그 자체적 발전을 통해 독자적 세계관과 배타적 진리관을 구축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영역을 점점 축소, 퇴화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날 과학기술만능주의의 심각한 도전이며 위협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만능주의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더욱더 인간 삶을 메마르게 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퇴색시킨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단연코 ‘정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현대의 사회는 점점 더 정보화 사회가 되어간다. 물론, 정보화 사회 나름의 장점과 편의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매우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즉, 정보가 곧 힘이고 돈이 된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현대인들은 정보를 모으고 추구하며, 또한 정보 획득을 통해 쌓인 힘을 사용하고자 시도한다. 이와 같은 정보 편향성은 현대인의 삶을 더욱 메마르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가짜 뉴스(fake news)와 가짜 정보마저 범람하게 되면서, 현대인들은 점점 더 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하고 헤매며 살아가게 된다.

3. 보건의료 현장의 영적 요구

인간의 언어는 대체로 두 가지의 큰 범주(category)로 나누어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지시 언어’(language of information and instruction)다. 이는 말 그대로 정보를 지시하는 언어다. 운전을 어떻게 하고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며, 또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또 하나는 바로 ‘의미통교 언어’(language of meaning and communication)다. 이는 정보가 아닌 의미를 전달하고 통교하는 언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든지, “고맙습니다” 혹은 “용기를 내세요” 등의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인간은 의미통교 언어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모든 것을 정보적(informative) 관점에서만 이해하려 들며, 정보의 수집이 곧 인간

사회의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논리에 쉽사리 젓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컴퓨터 과학과 첨단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정보화 시대의 진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편리함 뒤에 숨겨진 그늘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주변은 온통 정보지시적 언어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마저 점차 의미통교 언어가 실종되어가면서 많은 가정은 해체 위기에 직면한다.⁷⁾

이것은 보건의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오늘날의 많은 의료 현장은 과거 의학이 내포하고 있던 영적 요소들이 거의 실종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다.⁸⁾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한계 체험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많은 의료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많은 지시 사항들이 주어진다. 어떻게 보면, 환자는 자신이 복잡한 의료 체계의 한 요소일 뿐이며 그저 수동적으로 치료 행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하나의 무력한 존재라고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자를 하나의 전인적 인격체로 대하며 ‘치료’(cure)를 넘어서 ‘치유’(healing)를 지향하고자 하는 흐름이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 돌봄(spiritual care)을 통한 의미통교 언어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의미통교 언어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실행적 혹은 수행적(performative) 언어이기 때문이다. 정보 추구는 치료(cure)를 지향하지만, 의미통교는 궁극적으로 치유(healing)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미국 남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South Florida) 의과대학(college of medicine)의 종양학(oncologic science) 교수인 로도비코 발두치(Lodovico Balducci)는 치료와 치유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때로 치료는 되었으나 치유에 도달하

7) 참조: 박준양, 『삼위일체론, 그 사랑의 신비에 관하여』, 생활성서사, 2011, 63-66쪽; 박준양, 「온전함을 향한 신학—종교 다양성 맥락에서 영적 돌봄을 위한 함축적 전망」, 『사목연구』 38(2017/여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91쪽.

8) Cf. Margaret L. Stuber / Brandon Horn, “Complementary, Alternative, and Integrative Medicine”, in AA.VV.,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Mark Cobb / Christina M. Puchalski / Bruce Rumbold(e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91.

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치료에는 실패하였지만 치유에도달하는 경우도 있다.⁹⁾

영적 돌봄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서 제기된다. 이제는 보건의료 현장에서도 환자들의 영적 요구(spiritual needs)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이 치료의 한 객체적 대상이거나 의료 정보의 단순한 수취인(受取人)임을 넘어서, 전인적인 인격체로서 돌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영적 돌봄이란 환자에게 의료 정보와 치료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통교하는 행위다. 환자가 자신이 의료 정보의 수취인이나 치료의 객체적 대상 이상의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는 돌봄이다. 즉, 환자가 정보지시 차원을 넘어 의미통교 차원에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마주하고 대면(confrontation)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영적 돌봄이라 할 수 있다. 영적 돌봄의 핵심은 특히 심각한 만성적 질병이나 회복이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놓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체험하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초월적 의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데에 있다. 한마디로, 영적 돌봄이란 환자 자신의 영적 감수성(spiritual sensitivity)을 증대시키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의미 체험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돌봄이다. 그리하여 영적 돌봄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환자가 거룩한 실재와의 초월적 의미통교 속에서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되찾아 온전함(wholeness)을 향한 전인적 통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¹⁰⁾

9) Cf. Lodovico Balducci / H. Lee Modditt, “Cure and Healing”, in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p.151~152(한글 번역본: 로도비코 발두치·H. 리 모딧, 「치료와 치유」, 『헬스케어 영성 제2권—영적 돌봄의 개념』, 용진선·박준양·김주후·조재선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219~225쪽); 박준양, 「온전함을 향한 신학—종교 다양성 맥락에서 영적 돌봄을 위한 함축적 전망」, 94~97쪽.

10) 참조: 박준양, 「영적 돌봄의 인간학적·신학적 의미」, 『Health & Mission』 17(2009/겨울), 한국가톨릭의료협회, 8~9쪽; 「온전함을 향한 신학—종교 다양성 맥락에서 영적 돌봄을 위한 함축적 전망」, 91~92쪽.

4. 역동적 의미통교 언어로의 전환

불교 경전(sutra) 중 하나인 법구경(法句經)에는 인간의 말에 관한 한 가르침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의미통교 언어를 강조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쓸 데 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하며, 말을 삼가고 잘 다스려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하리”(제17장 Kodha Vagga 忿怒品, 제224편). “현인(賢人)은 [...] 말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네”(제17장 Kodha Vagga 忿怒品, 제234편). “말을 살피고 마음을 잘 억제하라”(제20장 Magga Vagga 道行品, 제281편). “혀를 잘 다스리니 좋네”(제25장 Bhikkhu Vagga 比丘品, 제360편).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 좋다”(제25장 Bhikkhu Vagga 比丘品, 제361편).

둘째, 말을 함에 있어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이는 보복하러 들 터이니, 누구에게라도 가혹하게 말하지 말라. 악의 있는 말은 실로 고통(dukkha)의 원인이며 그 응보가 그대에게 돌아오리라”(제10장 Danda Vagga 刀杖品, 제133편). “화를 내서는 안 되리”(제17장 Kodha Vagga 忿怒品, 제224편). “악언을 하지 않도록 잘 살피 지키고 그대 말을 통제하라. 악언(惡言)을 포기하고 선언(善言)을 가꾸어라”(제17장 Kodha Vagga 忿怒品, 제232편). “진실한 말을 하고 말로 어느 누구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 그를 일러 바라문이라 하네”(제26장 Brahmana Vagga 婆羅門品, 제408편).

셋째, 아무리 훌륭한 말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가르친 그대로 행동해야 하리”(제12장 Atta Vagga 己身品, 제159편).

11) 이하의 법구경 직접 인용문은 다음의 책에서 가져온 것이다: 『영어로 읽는 법구경(The Dhammapada)』, 담마난다(K. Sri Dhammananda) 영역, 이병두 국역, 불교시대사, 2003.

그런데 매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교 경전인 신약성경의 야고보 서간 1장에서도, 위의 세 가지 가르침과 각기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야고보 서간 1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불교 범구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첫째, 사람은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해야 합니다”(19절). 둘째, 화를 내며 말을 사납게 하지 말라는 점이다.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19-20절). 그리고 셋째, 인간의 언행일치(言行一致)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하는 점 역시 비슷하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22절).

이처럼 불교의 범구경과 그리스도교의 야고보 서간은 모두 인간의 언어에 관한 성찰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모두 인간 언어의 의미통교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 언어의 부정적 측면을 정화시키고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러할 때 의미의 진정한 통교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외에도 특히, 야고보 서간 1장 21절에서는 의미통교 언어의 긍정적 역동성에 대하여 매우 강조한다.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인간 구원에 관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룩한 말씀, 즉 신적인 말씀(divine Word)에 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이와 같은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여 체화(體化)시켜 살아갈 때, 그 인간의 언어 역시 역동적인 의미통교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위의 성찰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의미통교 언어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간 언어가 의미통교 차원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존중’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 인간 언어가 의미통교 차원에서 작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돕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언어학적 전망은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패러

다임(paradigm)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드러낸다. 즉, 영적 돌봄을 통해 한 인간의 치유를 격려하고 지지한다는 것은, 바로 ‘존중’과 ‘지지/격려’의 의미통교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미통교 언어란, 실제로 말하는(verbal) 행위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직접적인 말 아닌(non-verbal) 요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통교 언어 행위는 환자와의 유대감(connectedness) 형성을 통해, 환자가 영적인 차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돕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은 이러한 의미통교 언어를 통해서만 초월성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의 영적인 차원이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초월지향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spiritual being)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병고 등 그 실존적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의미성을 체험하고자 지향한다. 지상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의 체험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의미 체험이 동시에 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限界)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병고와 죽음의 위협은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한계 체험이다. 그런데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우리를 찾아오는 이러한 고통과 한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미소하고 유한(有限)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 자신의 실존적 운명에 대하여 매우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한계 체험은 곧 의미 체험을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무력한 한계 상황의 체험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의미 체험을 한다.¹²⁾

의미통교 언어를 통한 나눔과 소통은 이러한 초월적 의미 체험의 전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믿음과 종교를 선택하지는 않지만, 결국 인간은 사랑과 자비의 초월적 의미 체험을 통해서 자기 존재

12) 참조: 박준양, 『종말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생활성서사, 2013, 18-198쪽.

의 근원적 의미성을 발견하고 참다운 치유와 온전함,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공통적 증언이라 할 수 있다.

5. 영적 돌봄의 사회적 영향

영적 돌봄의 놀라운 힘은 무엇인가? 오랜 병고로 인해 쇠약해진 환자의 육체적 상태가 본래적 상태로의 자연적 복원 능력 바깥으로 이탈한 모습을 보여 준다면,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이를 대면하고 수용하면서 보다 근원적인 복원을 시도하게 된다. 거룩한 실재와의 초월적 의미통교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생명에 내재하고 있던 근원적인 온전함(wholeness)을 지향하게 된다. 영적 돌봄을 통해 이루어지는 초월적 의미통교 안에서 사랑과 연민의 체험이 가능해지면, 쇠락해진 육체적 상황 속에서도 환자는 자신이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근원적 존재성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영적 돌봄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설적인 전인적 통합이다. 이처럼 본래적 온전함과 충만함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환자는 비록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태, 혹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조차도 자신의 품위와 존엄성(dignity)을 되찾고 내적 평화(inner peace)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¹³⁾

영적 돌봄이 지향하는 온전함은 곧 사회적 차원의 평화 개념과 연결된다. 사실 구약성경에서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 ‘shalom’(shalom)은 어원적으로 ‘충만함’(fullness)이나 ‘온전함’(wholeness) 혹은 ‘조화’(harmony)를 가리키는 단어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와 존엄성의 회복은 바로 온전함의 체험을 통해 가능해진다. 하느님 안에서 평화와 존엄한 휴식을 누리던 에덴동산의 상태(창세기 2장 참조)가 바로 충만함(*shalom*)의 이상적 상태를 보여 준다.¹⁴⁾ 어떤 의미

13) 참조: 박준양, 「영적 돌봄의 인간학적-신학적 의미」, 9쪽.

14) 참조: 박준양, 「온전함을 향한 신학—종교 다양성 맥락에서 영적 돌봄을 위한 함축적 전망」, 73쪽.

에서, 의학적 치료와 영적 돌봄 모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온전함’을 지향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치유한다(heal)는 말 자체가 어원적으로는 온전하게(whole) 한다는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⁵⁾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영적 돌봄은 사회적 치유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영적 돌봄에 입각한 언어적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이 필요하다면, 이는 사회적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 오늘날의 사회야말로 온갖 정보, 그것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횡행하며 인간 삶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유대감(connectedness)과 관계성(relationship)을 통한 의미통교는 점차 사라져간다.

이미 미국의 저명한 실존분석 정신치료사인 롤로 메이(Rollo May, 1909~1994)는 현대에 이르러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에 관하여 말한 바 있다.¹⁶⁾ 롤로 메이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특히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자아를 상실하고 불안과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더군다나 바로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넘쳐나는 정보와 그 조작 가능성으로 인해 매스컴을 통한 여론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 인간의 인격적인 삶,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인격적인 관계는 점점 더 위협을 받는다. 나아가, 오늘날의 사회는 이미 다원화를 넘어 이제는 집단 이기주의 성향의 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처럼 인간들이 소외되고 분열되고 양극화된 사회에서 영적 돌봄이 지향하는 인격적 관계성과 유대감, 그리고 치유와 온전함의 개념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영적 돌봄 실천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사회 안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성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15) Cf. Daniel P. Sulmasy, *The Rebirth of the Clinic: An Introduction to Spirituality in Health Car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6, p.16.

16) 참조: 롤로 메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백상창 옮김, 문예출판사, 1977, 2010(원문: Rollo May, *Man's Search for Himself*, New York: W. W. Norton, 1953).

가 있다. 영적 돌봄을 통해 이루어지는 환자(patient)와 돌봄 제공자(caregiver) 사이의 인격적 만남은, 마치 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가 말한 바와도 같은 새로운 관계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상대방을 대상화나 객체화, 혹은 사물화시키는 기능주의적 만남을 넘어서, 인격적 차원의 새로운 나-너(I and Thou)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때, 나-너의 관계성은 동등한 인격적 존재자들 간의 만남을 의미하며, 그 만남은 결국 매우 영적인 특성을 지닌다.¹⁷⁾

이처럼 ‘관계 속의 존재’(persons-in-relation) 개념은 우리의 인격성이 보다 온전함(wholeness)을 지향하게 해준다. 여기서 ‘포용’(inclusion) 개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타인의 개인적 실존에 자신의 실존을 관련시키고 포함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서 상호 인격적인(interpersonal) 관계성이 실현되는 것이다.¹⁸⁾

바로 이처럼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직원(staff) 모두가 ‘포용성’을 통해 인격체로 상호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새로운 문화가 보건의료 현장의 기능주의적 맥락을 넘어서 더욱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이는 최근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급박하게 제기되는 영적 요구다.¹⁹⁾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질리언 화이트(Gillian Whit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영성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보건의료 실무에 있어 진정한 탁월함을 제공하여 전인적이고도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재정립하는 일

17) 참조: 마르틴 부버, 『나와 너』, 김천배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00[원문; Martin Buber, *I and Thou*, Walter Kaufmann(t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7, 1970]; William West, “Counseling”, in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281.

18) Cf. Neil Pembroke, “Healthcare Organizations: Corporate Spirituality”, in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394(한글 번역본: 닐 펨브로크, 『보건의료 조직: 기업영성』, 『헬스케어 영성 제5권 — 정책과 교육 그리고 미래의 도전』, 용진선·박준양·김주후·김현미·이강숙·조재선·이훈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62~63쪽).

19) Cf. Rosalie Hudson, “Personhood”, in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108(한글 번역본: 로잘리 허드슨, 『인격성: 의료윤리와 관계적 영성』, 『헬스케어 영성 제2권 — 영적 돌봄의 개념』, 59~60쪽).

의 열쇠라고 믿는다. 환자와 직원 모두가 보다 전인적인 방식으로 일하기를 희망한다. 영성과 영적 돌봄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이러한 희망을 실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²⁰⁾

따라서 영적 돌봄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인간 관계성의 새로운 인격적-영적 차원은, 이제 매우 의미심장한 사회적 함의와 파장을 지닌다. 나아가, 영적 돌봄의 실천은 사회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돌봄의 감수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가치를 함양시킬 수 있다. 사랑받은 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건의료 현장에서 영적 돌봄의 가치를 깊이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사회의 각 분야에서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영적 돌봄은 언젠가 사회적 치유를 가능하게 할 아름다운 씨앗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영적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욱 큰 사명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 가톨릭교회의 영적 돌봄과 사회적 봉사

영적 돌봄은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함의와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제껏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논지의 주요한 논증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톨릭교회가 어떻게 영적 돌봄을 통한 사회적 치유에 기여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 초기 역사와 현대 세계 안에서의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이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6.1. 그리스도교 초기 전통의 돌봄 정신과 사회적 실천

그리스도교는 이미 그 초기 전통부터 영적 돌봄의 정신이 살아

20) Gillian White, *Talking About Spirituality in Healthcare Practice: A Resource for the Multi-Professional Health Care Team*, London/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6, p.40.

있었고, 더욱이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널리 실천하고자 하였다.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박애주의 의무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정신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로마의 인간관과 가치관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한 개인적 관심과 자선을 장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아가페’(agape)에 기초를 둔 박애와 자선을 내세우며 이를 사회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diakonia)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육화적(incarnational)이며 구속적(redemptive)인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인간을 향한 희생적 사랑의 가장 좋은 이상과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이러한 이상적 계명을 가장 호소력 있고 영향력 있게 전달한 것은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라 할 수 있다. 이는 종교와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병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권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37절)는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5,27)는 사랑의 기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그리스 의료윤리에서는 이제껏 매우 생소했던 자비/연민(compassion)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회적으로 병자를 돌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의 중요한 영감이 되기에 이르렀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위의 병자들을 방문하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는 요청을 받았다. 초대 교회는 체계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집회 형태를 제정하기도 했다. 각 집회에는 사제(presbyteros)와 부제(diakonos)로 구성된 성직자들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자선 활동을 지도하는 데 협력했다. 정기적으로 병자들을 방문한 부제들은 그들의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을 맡았고, 사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쓰이는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성금을 모아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하였다. 그리고 과부들은 하나의

특별한 그룹을 형성하여 주로 여성들을 방문하는 데 주력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교 의료자선이 교회들의 규모가 작을 때, 그것도 서로 흩어져 로마제국의 박해까지 받던 시기에 더욱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교 의료자선은 더욱 효과적으로 체계화되고 널리 실천되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 이후 첫 두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는 로마인들의 세계에서 병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보던 유일한 조직이었다.²¹⁾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점점 더 신자 수를 늘려갈 수 있었다. 그리스도교 초기 복음 선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증언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복음 선포와 애덕 실천의 역사는 영적 돌봄을 통한 사회적 치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위대한 이상이자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6.2. 가톨릭교회의 최근 문헌에 나타난 영적 돌봄 전망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루어진 영적 돌봄의 사회적 실천이, 또한 오늘날 가톨릭교회 안에서 어떻게 천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특히 1962~1965년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The Second Vatican Council) 이후 오늘날까지 발표된 주요 교회 문헌들 중 몇몇을 소개하도록 한다. 이 문헌들에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영적 돌봄과 사회적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에도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천명되고 있다.

영적 돌봄의 가톨릭교회 문헌적 근거로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

21) 이 단락은 다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Gary B. Ferngren, "Medicine and Religion: A Historical Perspective", in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6(한글 번역본: 게리 B. 펀그렌,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학과 종교」, 『헬스케어 영성 제1권—건강과 영성의 전통』, 용진선·박준양·김주후·조재선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35~36쪽).

는 것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요 문헌인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1964.11.21.)이다.²²⁾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 찢긴 마음을 싸매 주며’(루카 4,18 참조),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루카 19,10)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파견되셨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주고,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8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이것은 믿음과 종교와 문화의 모든 장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과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의 정신과 의지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다음으로 교황청 직속 기구인 보건사목평의회가 2009년 10월 1일 발표한 문헌인 「사제의 해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병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살펴볼 수 있다.²³⁾ 여기서는 가톨릭교회의 사제가 수행해야 할 영적 돌봄의 직무와 사명에 대하여 잘 설명한다. “병자 곁에 있는 사제는 고통받는 이들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바로 신적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제가 집전하는 교회의 성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해, 죄의 용서, 도우, 성찬례, 노자성체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요한 레오나르디 성인이 즐겨 말하였듯이,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불멸의 영약’이 되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먹여 살리시

22)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1964.11.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Documenta Concilii Vaticani I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개정판 제3판), 73~171쪽 [원문: *Enchiridion Vaticanum*, vol.1(*Documenti ufficiali del Concilio Vaticano II: 1962-1965*), Bologna: EDB, 1993].

23)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사제의 해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병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한」(Letter of the President of the Pontifical Council for Health Care Workers to the Sick and Suffering in the World on the Occasion of the Year for Priests, 2009. 10.1.), http://www.cbck.or.kr/book/book_search.asp?p_code=k5110&seq=402119&page=1&Cat=A&key=Title&keyword=사제의 해.

며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게’(2베드 1,4) 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제의 인격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병자 곁에 현존하시어 몸소 병자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시고 병자에게 안수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1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발표한 「제18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를 들 수 있다. 2009~2010년의 ‘사제의 해’를 맞이해 발표한 「제18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에서, 베네딕토 16세는 영적 돌봄의 의미가 담긴 중요한 언명을 제시한다.²⁴⁾ “이 ‘사제의 해’에 저는 그리스도의 연민의 표지이고 도구이며 ‘병자들의 봉사자’로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다가가야 하는 사랑하는 사제 여러분을 특별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제 여러분, 병자들에게 아낌 없는 배려와 위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속에 있는 이들 곁에서 보내는 시간은 다른 모든 차원의 사목을 위하여 은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병자 여러분,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사제들을 위해 받쳐 주시어 사제들이 자신의 소명에 언제나 충실하고 그들의 직무가 온 교회를 위하여 풍요로운 영적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병든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을 ‘병자의 나움’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자애로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 드리며,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도로서 축복을 보내 드립니다.”

또한 최근 가톨릭교회의 주요 공식 문헌들 중에서 영적 돌봄의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란치스코 1세 현 교황이 2015년 4월 11일에 발표한,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인 『자비의 얼굴』(*Misericordiae Vultus*)²⁵⁾이다. 이는 영적 돌봄을 위한 여러

24) 참조: 교황 베네딕토 16세, 「제18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2010.2.11.) http://www.cbck.or.kr/book/book_search.asp?p_code=k5110&seq=401985&page=2&Cat=A&key=Title&keyword=병자의 날[원문: “Homiliae Recurrenre XVIII Internationali Die Infirmis dicato”, *Acta Apostolicae Sedis* 102(2010) 143~146].

측면에서의 합의가 내포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이 사랑은 이제 예수님의 온 삶에서 눈에 보이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사랑, 자신을 거저 내어 주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그분께서 맺는 관계는 각기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인이나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병자들, 고통받는 이들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은 자비를 보여 줍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비로 드러납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비가 넘칩니다”(8항). “**자비의 육체적 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곧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들을 따뜻이 맞아 주며, 병든 이들을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가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며, 죽은 이들을 묻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비의 영적 활동**도 잊지 맙시다. 곧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며, 죄인들을 꾸짖고, 상처 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해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로이 견디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 하여야 합니다”(15항).

마지막으로, 역시 현 교황 프란치스코 1세가 2015년 9월 15일 발표한 「2016년 2월 11일 제24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를 살펴볼 수 있다.²⁶⁾ 여기서는 우리가 온유함을 통하여 아픈 이들의 영적 요구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함이 특히 강조된다. “마리아께서는 위로받으신 어머니로 당신 자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카나에서 예수님과 당신 사명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요한 2,1-12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오신 분이십니

25) 교황 프란치스코 1세, 『자비의 얼굴: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에 관한 칙서』(2015.4.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원문: “Litterae apostolicae sub plumbo datae Misericordiae Vultus”, *Acta Apostolicae Sedis* 107(2015) 399-420].

26) 교황 프란치스코 1세, 「2016년 2월 11일 제24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2015.9.15.) http://www.cbck.or.kr/book/book_search.asp?p_code=k5110&seq=402567&page=1&Cat=A&key=Title&keyword=병자의 날[원문: “Occasione XXIV Diei Mundialis Aegrotis dicati, cui propositum est «Dedite misericordie Iesu uti Maria: ‘quodcumque dixerit vobis, facite’(Io 2,5)»”, *Acta Apostolicae Sedis* 107(2015) 1056-1060].

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 사업으로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을 고쳐 주시고, 눈먼 이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며,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들이 건강과 존엄을 되찾도록 해주시며, 죽은 이들을 되살리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루카 7,21~22 참조). 성령께서 마리아의 어머니다운 마음에 불러일으키신 요청을 통하여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뿐만 아니라 자비도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배려에는 하느님의 온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요구, 심지어 가장 눈치 채기 힘든 요구까지도 알아보는 많은 이들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아픈 사람들을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픈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자녀, 조부모를 돌보는 손주들이 얼마나 자주 자신들의 기도를 성모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들의 건강을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치유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가톨릭교회의 최근 공식 문헌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영적 돌봄을 실천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강조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초대 교회부터의 실천과 전통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의 영적 요구를 경청해야 함이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적 돌봄이 보건의료 현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치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의 근거로서, 초대 그리스도교의 영적 돌봄이 어떻게 사회적 차원의 봉사 실천으로 확장되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켜 복음 선포에 기여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초대 교회의 복음 정신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대 교회의 가르침에서도 생생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또한 제시하였다.

이처럼 영적 돌봄을 통해 실현되는 새로운 인격적 관계성은 인간 본성의 심오한 차원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도 화해와 치유의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한다. 이러한 성찰은 여러 분열과 다극적 분화를 겪고 있는 사회 현상에 어떤 치유적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암시한다. 특히, 영적 돌봄의 사회적 실천은 소외받는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파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해준다. 보건의료 현장의 영적 돌봄 제공자들은 이러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깊이 인식하여 더욱 책임감 있고 심화된 영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바로 이 사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교회 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Documenta Concilii Vaticani I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개정판 제3판)[원문: *Enchiridion Vaticanum*, vol.1(*Documenti ufficiali del Concilio Vaticano II: 1962~1965*), Bologna: EDB, 1993].
- 요한 바오로 2세, 『신앙과 이성 —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관한 회칙』(1998. 9.14.), 이재룡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원문: “Litterae encyclicae Fides et Ratio de necessitudinis natura inter utramque”, in *Enchiridion Vaticanum: Documenti ufficiali della Santa Sede*, vol.17(1998), Bologna: EDB, 2000, pp.898~1091(nn.1175~1399)].
-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인간 발전에 관한 회칙』(2009.6.2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원문: “Litterae encyclicae Caritas in Veritate de humana integra progressionem in caritate veritateque”, *Acta Apostolicae Sedis* 101(2009), 641~709].
- _____, 「제18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2010.2.11.), http://www.cbck.or.kr/book/book_search.asp?p_code=k5110&seq=401985&page=2&Cat=A&key=Title&keyword=병자의 날[원문: “Homiliae Recurrente XVIII Internationali Die Infirmis dicato”, *Acta Apostolicae Sedis* 102(2010), 143~146].
- 프란치스코 1세, 『신앙의 빛 — 신앙에 관한 회칙』(2013.6.29.), 김영선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원문: “Litterae encyclicae Lumen Fidei de fide”, *Acta Apostolicae Sedis* 105(2013), 555~596].
- _____, 『자비의 얼굴 —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에 관한 칙서』(2015. 4.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원문: “Litterae apostolicae sub plumbo datae Misericordiae Vultus”, *Acta Apostolicae Sedis* 107(2015), 399~420].
- _____, 「2016년 2월 11일 제24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2015.9.15.), http://www.cbck.or.kr/book/book_search.asp?p_code=k5110&seq=402567&page=1&Cat=A&key=Title&keyword=병자의 날[원문: “Occasione XXIV Diei Mundialis Aegrotis dicati, cui propositum est «Dedite misericordie Iesu uti Maria: ‘quodcumque dixerit vobis, facite’(Io 2,5)»”, *Acta Apostolicae Sedis* 107(2015), 1056~1060].
-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사제의 해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병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한」(Letter of the President of the Pontifical Council for Health Care Workers to the Sick and Suffering in the World on the Occasion of the Year for Priests, 2009.10.1.), http://www.cbck.or.kr/book/book_sear

ch.asp?p_code=k5110&seq=402119&page=1&Cat=A&key=Title&kword=사제의
해.

2. 불교 경전

『영어로 읽는 법구경』(*The Dhammapada*), 담마난다(K. Sri Dhammananda) 영
역, 이병두 국역, 불교시대사, 2003.

3. 기타 문헌

- AA. Vv.,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Mark Cobb / Christina M. Puchalski / Bruce Rumbold(e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한글 번역본: 『헬스케어 영성 1 — 건강과 영성의 전통』, 용진선·박준양·김주후·조재선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헬스케어 영성 2 — 영적 돌봄의 개념』, 용진선·박준양·김주후·조재선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헬스케어 영성 4 — 영적 돌봄의 연구』, 용진선·박준양·김주후·이강숙·조재선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헬스케어 영성 5 — 정책과 교육 그리고 미래의 도전』, 용진선·박준양·김주후·김현미·이강숙·조재선·이훈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 BALDUCCI, Lodovico / MODDITT, H. Lee, “Cure and Healing”, in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p.151~155(한글 번역본: 「치료와 치유」, 『헬스케어 영성 2 — 영적 돌봄의 개념』, 217~242쪽).
- BUBER, Martin(마르틴 부버), 『나와 너』, 김천배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00 [원문: *I and Thou*, Walter Kaufmann(t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7, 1970].
- FERNGREN, Gary B., “Medicine and Religion: A Historical Perspective”, in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6[한글 번역본: 게리 B. 펀그렌,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학과 종교」, 『헬스케어 영성 제1권 — 건강과 영성의 전통』, 35~36쪽].
- HUDSON, Rosalie, “Personhood”, in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p.105~111(한글 번역본: 로잘리 허드슨, 「인격성: 의료윤리와 관계적 영성」, 『헬스케어 영성 제2권 — 영적 돌봄의 개념』, 43~74쪽).
- KÜNG, Hans, 『한스 쿡, 과학을 말하다: 만물의 시초를 둘러싼 갈등과 소통의 드라마』, 서명옥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1(원문: *Der Anfang aller Dinge: Naturwissenschaft und Religion*, München: Piper Verlag GmbH,

- 2005).
- MAY, Rollo(롤로 메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백상창 옮김, 문예출판사, 1977, 2010(원문: Rollo May, *Man's Search for Himself*, New York: W. W. Norton, 1953).
- PEMBROKE, Neil, “Healthcare Organizations: Corporate Spirituality”, in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p.391~396(한글 번역본: 닐 펨브로크, 「보건의료 조직: 기업영성」, 『헬스케어 영성 제5권 — 정책과 교육 그리고 미래의 도전』, 49~71쪽).
- STUBER, Margaret L. / HORN, Brandon, “Complementary, Alternative, and Integrative Medicine”, in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p. 191~195.
- SULMASY, Daniel P., *The Rebirth of the Clinic: An Introduction to Spirituality in Health Car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6.
- WEST, William, “Counselling”, in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p. 279~284.
- WHITE, Gillian, *Talking About Spirituality in Healthcare Practice: A Resource for the Multi-Professional Health Care Team*, London/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6.
- 박준양, 『삼위일체론, 그 사랑의 신비에 관하여』, 생활성서사, 2007, ²2011.
- _____, 『종말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생활성서사, 2007, ³2013.
- _____, 「영적 돌봄의 인간학적-신학적 의미」, 『Health & Mission』 17(2009/겨울), 한국가톨릭의료협회, 4~14쪽.
- _____, 「오늘날 건전한 신앙을 저해하는 문화적 흐름과 운동에 관한 조직신학적 성찰」, 『교회사연구』 42(2013/12월), 한국교회사연구소, 139~203쪽.
- _____, 「온전함을 향한 신학 — 종교 다양성 맥락에서 영적 돌봄을 위한 함축적 전망」, 『사목연구』 38(2017/여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71~112쪽.
- 심광현,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 — 예술·학문·사회의 수평적 통섭을 위하여』, 문학과학사, 2009.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 살아간다. 과학의 건전한 발전과 그에 따른 생활의 편리함과과는 달리,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과학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제 과학이 전통적인 불가침의 영역을 넘어서고 대체하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생각의 흐름이 널리 퍼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현대는 점점 더 정보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인들은 주로 ‘정보지시 언어’만을 사용하며, ‘의미통교 언어’를 점점 상실해간다. 보건의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보건의료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의미통교 언어의 사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적 돌봄의 기여가 요구된다.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전인적 인격체로 대하며 ‘치료’를 넘어서 ‘치유’를 지향하고자 하는 흐름이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등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 돌봄을 통한 의미통교 언어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의미통교 언어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정보 추구 차원에서는 단지 치료를 지향하지만, 의미통교는 궁극적으로 치유를 지향한다. 영적 돌봄이란 환자에게 의료 정보와 치료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통교하는 행위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영적 돌봄은 사회적 치유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영적 돌봄에 입각한 언어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 이는 사회적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들의 홍수 속에 한 인간의 인격적인 삶,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인격적 관계가 점점 더 위협을 받는다. 오늘날의 사회는 이미 다원화를 넘어서 이제는 집단 이기주의 성향의 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처럼 인간들이 소외되고 분열되고 양극화된 사회에서 영적 돌봄이 지향하는 인격적 관계성과 유대감, 그리고 치유와 온전함 개념은 사회적 차원에

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영적 돌봄 실천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사회 안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성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것은 상대방을 대상화나 객체화, 혹은 사물화시키는 기능주의적 만남을 넘어서, 인격적 차원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 속의 존재’ 개념은 우리의 인격성이 보다 온전함을 지향하게 해준다. 영적 돌봄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인간 관계성의 새로운 인격적·영적 차원은, 의미심장한 사회적 함의와 파장을 지닌다. 나아가, 영적 돌봄의 실천은 사회에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돌봄의 감수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가치를 함양시킬 수 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영적 돌봄은 언젠가 사회적 치유를 가능하게 할 아름다운 씨앗을 이미 내포한다. 그리스도교는 이미 그 초기 전통부터 영적 돌봄의 정신을 빛내고 있었고, 더욱이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널리 실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최근의 가톨릭교회 문헌은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 돌봄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 주제어: 영적 돌봄, 온전함, 영성, 의미통교, 사회적 치유.